

# 전주시민 자긍심 · 애향심 고취

전주시민의 날 ·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3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의 장 · 모범시민상 등 시상 진행

‘제61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3주년’ 기념행사가 단오날인 지난 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과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66만 전주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전주정신을 재확인 자리로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과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3주년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에서는 어울초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꿈여울중창단의 ‘꽃심 전주’ 공연과 전문낭송인과 국악인이 함께하는 ‘전주정신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또한,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6명과 모범시민상 5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2019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호 열장의 이상희 씨(53, 여) △교육장의 김윤경 씨(60, 여) △문화장의 강정열 씨(68) △노동산업장의 양균의 씨(67) △공익장의 손순갑 씨(78) △체육장의 이병하씨(68)이다.



‘제61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3주년’ 기념행사가 단오날인 지난 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과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시장이 모범시민상 수상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평소 한결같은 성실한 봉사정신과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유경수(동서학동) △

장기선(덕진동) △김순중(금암2동) △김명자(완산동) △이재홍(호지5동) 등 5명이 모범시민상을 받았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기념행

사가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전주정신의 우수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객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사회적부동산 운영

전주시, 50곳 지정 지역상권 보호 ·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

전주객리단길(객리단길) 등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정착시킬 사회적부동산 제도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상가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급등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앞장설 사회적부동산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약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중 앞서 지정된 한옥마을을 사회적부동산 8개소를 포함해 모범이 되는 중개사사무소 50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사무소 중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곳이다.

시는 추천 받은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자격을 검증한 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회적부동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현대전화 상습 절도 50대 검거

상습적으로 현대전화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경 군산 시내 모 마을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일 오전 9시 47분경 익산 시내 모 의원에서 데스크 위에 놓인 현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지갑 훔친 50대 붙잡혀

지갑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경 전주시 덕진구 한 편의점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갑 안에 있던 커피 충전식 카드로 커피대금을 결제한 혐의(사기)도 있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 올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고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액은 20만 162건, 총 275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 부착과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 기 (CD/ATM) △위택스

(www.wetax.go.kr) △ 가상계좌(전북은행)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 ‘노인 목욕 서비스실적 전산 위조’

요양급여 1억5000만원 ‘꿀꺽’

요양보호사를 무더기 적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작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 복지 센터장 A(57)모씨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비콘(Beacon)’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가 노인 집에 설치되는 비콘은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로, 이를 이용해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보험공단은 이들이 내민 기록을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영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강석훈 기자

## ‘49차례 마카오 원정 도박’ 경찰 간부 벌금형

수십여차례 해외로 나가 도박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A모(50)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국 기간동안 49차례에 걸쳐 총 1억 8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

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를 받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경감이 도박에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 우수 중기 동남아 시장공략 돕기

전주시, ‘방콕 한류박람회’ 참가 7개 업체 지원

전주시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을 활용해 지역내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을 돕는다.

시는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태국에서 열린 방콕 한류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홍콩과 하노이 등 동남아시아 개척 활동을 위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류박람회가 열린 방콕의 경우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널리 확산되고 있고 아세안시장 내에서도 선도적 소비시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주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와 전북KOTRA지원단은 이번 한류박람회에 이어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주지역 7개 업체를 ‘2019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홍콩과 베트남 하노이의 2개 무역관을 방문해 무역관별 해외바이어 상담·발굴 및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현지 해외시장 조사비용과 바이어발굴 비용, 상담장 임차 및 통역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는 향후에도 KOTRA 등 유관기관 사업의 연계 지원으로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의 실질적 수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도 힘을 계획한다.

강병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이라 불리는 신흥시장인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